

글짓기 敎育

朴 泳 穆
(文敎部 人文科學編修官室)

1. 序

知識과 情報의 量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高度로 複雜해져 가는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單純히 既成品化되어 있는 知識이나 情報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複雜하고 多樣한 問題事態들을 自主적으로 解決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자라나는 學生들이 앞으로의 高度産業社會에서 이러한 問題事態들에 能動的으로 對應하면서 보다 人間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創意的으로 생각하는 能力을 길러 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能力을 길러 주기 위한 가장 效果的인 方法은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이며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계속하는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作文의 危機(writing crisis)’에 대한 認識과 함께 學校敎育에서의 作文敎育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제 4차 敎育課程에 이어 제 5차 敎育課程에서도 일관되게 作文敎育의 強化를 國語科 敎育의 基本 方向으로 삼아오고 있다. 그러나 作文敎育에 대한 敎育課程 次元에서의 強調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學校 現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與件으로 인하여 作文能力의 伸張을 위한 敎育活動이 제대로 活性化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作文指導에 관

심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學生들의 作文能力이 기대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意見を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새로이 改正된 제 5 차 教育課程에서 意圖하고 있는 作文教育의 目標은 무엇이며, 이러한 目標들이 教育現場에서 充實히 具現되기 위해 作文指導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價値를 지니는 일일 것이다

2. 作文教育의 目標 및 內容

제 5 차 국민 학교 교육 과정, 중학교 교육 과정 및 고등 학교 교육 과정 (시안)에 제시된 작문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 학교 교육 과정

(1) 敎科目標 :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2) 學年目標

○ 1—2 학년 : 한글을 바르게 쓰고, 짧은 글을 즐겨 짓게 한다.

○ 3—4 학년 : 주제에 알맞은 소재나 내용을 찾아, 짜임이 분명한 글을 쓰게 한다.

○ 5—6 학년 : 목적, 대상, 상황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선정, 조직하여 글을 쓰게 한다.

(3) 指導內容 : 教育課程에 제시된 指導內容 중 글짓기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를 바르게 사용한다. (1—2 학년)

○ 주어진 낱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다. (1—2 학년)

○ 그림을 보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쓴다. (1—2 학년)

○ 글을 읽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쓴다. (1—2 학년)

○ 일상 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간단하게 기록한다. (2—3 학년)

년)

- 인상 깊었던 일을 글로 쓴다. (2—3 학년)
- 그림을 보고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 묘사하여 글을 짓는다. (3 학년)
- 일이나 행동의 순서가 잘 드러나게 글을 쓴다. (3 학년)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짧은 동시로 쓴다. (3—4 학년)
-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을 찾아 소개하는 글을 짓는다. (4

학년)

-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짜임이 분명한 글을 쓴다. (4 학년)
- 자기가 쓴 글을 친구나 선생님과 함께 다듬는다. (4—5 학년)
- 인사, 초청, 소개, 사과 등의 목적으로 편지를 쓴다. (4—5 학년)
- 순서가 바뀐 글을 바로 잡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글을 쓴다. (5—

6 학년).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동시로 쓴다. (5—6 학년)
- 글을 읽고 받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글로 쓴다. (5—6 학년)
- 한 가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정보 전달, 주장 등의 목적으로 글을 쓰고 쓴 글을 비교한다. (6 학년)
- 자기가 쓴 글의 내용, 조직, 표현 등에 대하여 친구와 함께 토의한 뒤, 그 글을 다시 다듬어 쓴다. (6 학년)

2) 중학교 敎育 과정

(1) 敎科目標 :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2) 學年目標

- 1 학년 :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쓰게 한다.
- 2 학년 : 주제에 알맞은 소재를 찾고,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쓰게 한다.
- 3 학년 : 내용을 참신하고 개성있게 표현하며, 목적이나 대상에 알맞게 글을 쓰게 한다.

(3) 指導內容 : 중학교 敎育課程에 제시된 指導內容 중 글짓기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글을 읽고 받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글을 즐겨 쓰기. (1학년)
- 여러 가지 감정이 잘 드러난 글을 쓰기. (1학년)
- 단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묘사, 서술하는 글을 쓰기. (1학년)
- 자기가 쓴 글의 내용, 조직, 표현에 대하여 친구와 함께 토의한 후 다듬어 쓰기. (1-2학년).

- 글을 읽고 받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글을 즐겨 쓰기. (1학년)
- 단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묘사, 서술하는 글을 쓰기. (1학년)
- 행동이나 상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여 글을 짓기. (1-2학년).

- 자기의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글을 쓰기. (1-2-3학년)
- 통일성, 응집성, 연결성이 결여된 부분을 찾고, 이를 바르게 고치기. (2학년)

- 주어진 글에서 내용이 너무 축약된 부분을 찾고, 이를 자세하게 풀어 써 쓰기. (2학년)

- 하나의 주제나 소재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는 글, 묘사·서술하는 글, 주장하는 글을 쓰고, 내용의 선정, 전개 방법, 결론의 도출 방법 등의 차이를 알기 (2-3학년)

- 하나의 주제나 소재에 대하여, 여러 층의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써 보고, 독자의 배경, 지식, 요구 등이 잘 고려되었는지 토의하기. (2-3학년)

- 같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보고하는 글, 주장하는 글을 쓰고, 쓴 글을 비교하기 (3학년)

- 인사, 초청, 사과 등의 목적으로 편지를 쓰고, 대상과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토의하기. (3학년)

- 읽은 글의 내용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쓰기. (3학년)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글을 쓰기. (3학년)

3) 高等 학교 敎育 과정(試案)

(1) 敎科目標 :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언어 사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2) 國語科目 目標 : 목적, 대상, 상황에 맞게 생각과 느낌을 선정, 조직하여 창의적으로 쓰게 한다.

(3) 作文科目 目標

○의사 표현 행위로서의 작문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게 한다.

○작문의 기본 원리를 알게 한다.

○목적, 대상,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4) 國語科目의 指導內容

○의사 소통 행위로서의 쓰기의 특성을 이해한다.

○문장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단어나 문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개성있는 글을 쓴다.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대상, 목적, 상황에 맞게 내용을 선정하고,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글을 쓴다.

○여러 유형의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글을 쓴다.

○쓰여진 글을 평가하고 다듬어, 보다 나은 글로 고쳐 쓴다.

以上에서 제시된 作文敎育의 目標 및 內容은 作文能力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서 다음 두 가지 원리를 그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글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思考作用으로서 어떤 주어진 狀況에서 일정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의 讀者를 대상으로 생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過程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새 敎育 과정에서는 作文指導時

에 글을 쓰는 目的, 對象讀者, 그리고 글의 種類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學習活動을 체계적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作文의 過程은 '計劃하기', '作成하기', 그리고 '再考하기'의 특징적인 세 가지 단계로 區分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 교육 과정에서는 作文指導時에 作文할 내용의 選定 및 組織, 적절한 言語로의 表現, 그리고 評價하기 및 고쳐쓰기 등에 관한 學習活動을 體系的으로 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3. 作文指導時の 留意事項

새 教育課程에 의거하여 앞으로 作文指導를 할 때에는 앞에서 제시된 두 가지 사항 즉 作文의 狀況과 作文의 過程을 특히 重視할 필요가 있다.

1) 作文의 狀況

생각을 글로 表現한다는 것은 결코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일정한 狀況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편의 글은 흔히 자신의 內的 欲求를 表現하거나 다른 사람의 注意를 끌게 할 필요가 있는 狀況에 대하여 글 쓰는 사람이 反應한 結果로서 存在하게 된다. 따라서 글을 쓰는 狀況은 사람과 사건과 대상들의 복잡한 관계들로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글쓰는 狀況과 관련하여 作文指導時에 특히 고려해야 할 要素들로서 글 쓰는 사람, 그 글을 읽을 사람, 그리고 글쓰는 사람의 目的(또는 意圖) 등 세 가지가 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한 편의 글 속에서 그 자신의 태도 또는 입장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러한 입장 및 태도에 따라 글의 형태나 표현 방식들이 달라지게 된다. 글쓰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과민할 수 있으며, 또한 합리적이거나 확신적일 수도 있고,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일 수도 있다. 글쓰는 사람의 이러한 態度는 그 글이 갖는 意味의 한 部分이 되므로 어떤 하나의 입장 또는 태도를 결정하는

일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學生들에게 깊이 認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글을 쓰는 狀況에서 그 글을 읽을 사람들을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그 글은 空益한 글이 되고 만다는 事實도 學生들에게 強調할 필요가 있다. 글을 씀에 있어서 對象讀者는 명백하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學生들이 學校에서 하나의 課題로서 써내게 되는 글의 경우, 대상 독자는 그 과제를 부여한 선생님과 학급의 급우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글의 對象讀者는 筆者 스스로 決定해야 된다. 이 경우 대상 독자의 연령, 성별, 생활 지역, 교육 정도, 문화적 또는 사회적 관심사, 종교, 직업, 취미 등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對象讀者의 特性을 體系的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글로서의 條件을 充足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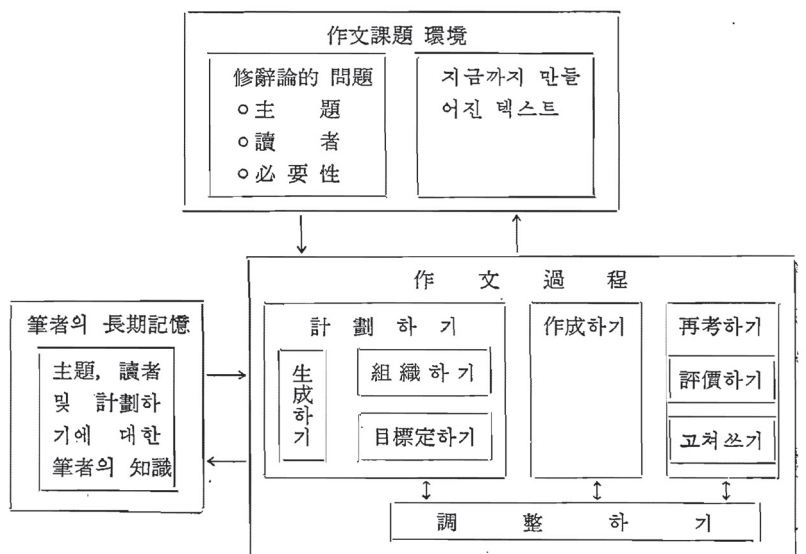
글을 쓰는 狀況에서 學生들에게 강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글쓰는 사람 자신의 意圖 또는 目的을 미리 決定해야 된다는 점이다. 글을 쓰는 目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겠으나 이를 알리기 위한 글, 확신시키거나 설득시키기 위한 글,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글, 즐기기 위한 글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네 가지 목적은 실제의 글에서 중복되기 마련이지만 대부분의 글에서는 어느 한 가지 목적이 다른 목적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관련하여 學生들에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글을 써 보게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일기, 편지, 보고서, 설명문, 논설문, 감상문, 시, 수필) 등을 써 보게 하고, 그 글들의 특성에 맞게 作文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주는 것은 대단히 가치로운 일이 된다.

2) 作文의 過程

作文의 認知的 過程을 作文의 狀況 및 筆者의 知識 등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作文指導를 보다 效果的으로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의 作文研究

에서 가장 널리 引用되고 있는 Flower와 Hayes(1981)의 作文過程 모델을 중심으로 作文의 認知的 過程의 下位過程들의 特性을 살펴보기로 한다.

〈表 1〉에 제시된 作文過程 모델은 作文行爲를 일련의 계속되는 단계로 보지 않고 筆者가 作文의 過程에서 適切히 調整하고 統制해야 하는 몇 가지 下位過程들의 集合으로 보고 있다. 이 모델에서 作文課題環境은 作文課題, 作文目的, 對象讀者 그리고 지금까지 作成된 텍스트 등을 모두 包括하는 것으로서 筆者의 認知作用 外部에 存在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作文의 狀況과 관련되는 이 環境의 要因들은 作文行爲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作文行爲의 本質을 形成할 수는 없는 것이다. 筆者의 長期記憶은 作文의 主題에 대하여 필자가 알고 있는 知識은 물론 作文行爲와 관련되는 계획하기, 作文의 原理, 修辭論의 原理들에 대한 知識들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筆者가 실제로 알고 있는 모든 知識이 아니고 作文의 過程에서 그의 長期記憶으로부터 끌어내어 선택하고 活用할 수 있는 知識이다.



〈表 1〉 作文過程 모델

作文過程 모델에서 가장 核心이 되는 부분은 작문 과정에 관한 부분이다. 이 作文過程 部分은 筆者가 作文行爲를 하는 동안에 채택하게 되는 주요한 思考過程을 나타낸 것이다. ‘計劃하기’는 內容을 生成해 내고 그것을 組織하고 글의 目的과 節次를 決定하는 思考活動을 포괄한다. 여기에서 계획하기는 매우 廣意의 概念으로 사용되었는데 실제로 종이 위에 생각을 글로 옮겨 적기 이전의 모든 思考活動을 포함한다. 또한 계획하기는 作文의 全過程을 통하여 作用함과 동시에 그것이 반드시 言語的 形態로 實現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作成하기’는 계획하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문자 언어로 번역하여 表現하는 認知的 過程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계획하기 과정에서 작성하기 과정으로 넘어 올 때 반드시 言語的 形態로 表象될 수 있는 그러한 明示의 意味의 形態를 갖추고서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筆者는 쉽게 記號化할 수 없는, 덜 개발된 表象들을 言語로 번역해야 한다. 이러한 表象들을 文學言語로 번역하는 일은 새로운 制約을 筆者에게 加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筆者는 그 意味를 다듬거나 分明히 하거나 補充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성하기 과정에서 다시 계획하기 과정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再考하기’過程은 지금까지 계획된 내용 혹은 작성된 내용을 評價하는 過程이다. 만약 評價의 結果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고쳐쓰기 過程을 거치게 된다. 再考하기過程은 作文過程의 중간 혹은 끝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筆者는 계획하기 및 작성하기는 일단 제쳐두고 지금까지 작성된 텍스트를 읽고 체계적으로 評價하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再考하기 과정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進行中인 作文行爲를 방해하게 된다.

‘調整하기’로 말미암아 필자는 계획하기 과정에서 작성하기 과정으로 옮겨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調整하기’의 機能은 필자에 따라 또는 作文課題에 따라 달리 作用될 수도 있다. 어떤 筆者들은 可能하면 빨리 作成하기 過程으로 들어가는 反面에 어떤 필자들은 계획하기 과

정이 충분히 완결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作成하기 過程으로 들어가게 된다.

〈表 1〉에서 제시된 作文의 認知的 過程모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念頭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作文의 下位過程들은 거의 同時的이며 相互作用的으로 機能한다는 점이다. 즉, 계획하기, 작성하기, 재고하기와 같은 과정들은 반드시 고정된 순서로 作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 作文의 全過程은 目標指向的이라는 點이다. 실제로 作文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讀者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全體的 目標는 물론 作文行爲의 指針이 되는 下位目標들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들 목표의 質과 量은 筆者의 作文能力과도 관계가 있다. 또한 그러한 목표들은 작문의 전과정에 論理와 連結性을 부여한다. 셋째, 作文行爲는 새로운 목표의 발견을 誘導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단순히 일련의 하위 목표들로서 상위 목표를 뒷받침해 나갈 뿐만 아니라 作文의 過程에서 作文行爲로 인하여 획득한 洞察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위 목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以上에서 제시된 作文의 下位過程들과 관련하여 실제의 作文指導時에는 作文의 過程을 아이디어의 生産過程, 텍스트의 生産過程, 고쳐쓰기 過程으로 分明하게 區分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의 生産過程은 아이디어의 發見過程과 調整過程으로 細分될 수 있으며, 텍스트의 生産過程에서는 텍스트, 단락, 文, 單語 등의 단계로 細分될 수 있다. 특히 텍스트의 生産過程과 관련하여 構造的 裝置, 文體上的 裝置, 內容上的 裝置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고쳐쓰기 過程 또한 텍스트의 生産過程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各 段階별로 細分해서 指導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4. 結

지금까지 作文教育의 必要性, 作文教育의 目標 및 指導內容, 그리고 作

文指導時의 留意事項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하였다. 學生들의 作文能力을 보다 效果的으로 伸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學生들의 作文能力은 마치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끊임없는 연습의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획득된다는 점이다. 둘째, 學生들의 作文能力伸張을 도와 주는 길은 作文의 過程에서 學生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制約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策略들에 관한 知識과 技能을 체계적으로 길러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

◦속 답◦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여 남의 일을 크게 그르칠 때 이름.

◦한 번 걸어챌 돌에 두 번 다시 채지 않는다.

똑같은 실수는 거듭하지 말라는 뜻.

◦두부 먹다 이빠진다.

마음 놓은 데서 실수가 생긴다는 말. 틀림없는 데서 뜻밖의 실수를 할 때 이름.

◦시시덕이는 재를 넘어도 새침데기는 골로 빠진다.

떠벌한 사람은 그다지 큰 실수는 없으나 늘 새침하고 얄전한 체하는 사람이 도리어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있다는 말.

◦성인도 하루에 죽을 말을 세 번 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는 하는 법이라는 말.

◦상치 밭에 똥싼 개는 늘 저개 저개 한다.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늘 그런 의심을 받게 된다는 말.

◦번연히 알면서 새 바지에 똥싼다.

事理를 알면서 실수한다는 말.

◦광주리에 담은 밥도 얹어질 수가 있다.

틀림없을 듯한 일도 잘못하여 그르칠 때가 있다.